

Exodus I (1~18 장)



1. 출애굽기 초반부 (1-18장) 개요

두 번째 책 출애굽기입니다.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70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이집트에 갑니다.

야곱의 열 한 번째 아들인 요셉은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요셉은 기근 가운데 그의 온 가족을 구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안전한 피난처인 이집트에서 살기를 제안합니다. 마침내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고, 요셉과 다른 형제들도

복을 상실했습니다.

-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려 하십니다. (창17:1-6)

그러나 새로 된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복으로 여기지 않았고 날로 늘어가는 이스라엘 이민자들을 자기 권력의 위협 세력으로 여깁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인류가 하나님의 복을 거스렸던 것처럼 바로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차없이 노예로 삼아 강제노역을 시키고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바로는 여태껏 성경에 나온 인물 중 최악입니다.

바로 왕국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역하는 인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바로는 자신의 유익에 따라 선과 악을 재정의하고 심지어 무고한 아이들을 살해하는 것이 자신에게 선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집트는 창세기에 나온 바벨론보다 더 악한 곳이 됩니다.

다 죽게 됩니다. 400년정도가 흐르고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이집트에서의 탈출 사건이 전반부이고, 후반부 내용은 시내산 자락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번 비디오는 출애굽기의 전반부(1-18장)를 다룹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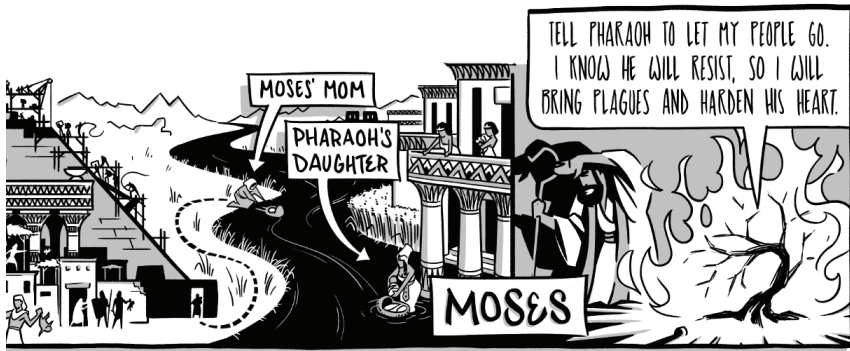
2. 악한 왕 바로의 이스라엘 박해

400년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였습니다(1:7). 이 구절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복(창1:28)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까지의 성경이야기의 큰 줄거리를 상기시킵니다.

- 인류는 죄와 반역을 통해 하나님의





CONFRONTATION BETWEEN 5-15 GOD & PHARAOH

HEART GREW HARD

LET MY PEOPLE GO!

GOD VS PHARAOH

"PHARAOH HARDENED HIS HEART"

OR

"HIS HEART GREW HARD"

"GOD HARDENED PHARAOH'S HEART"

THE POINT

GOD **KNEW** PHARAOH WOULD RESIST, BUT STILL GAVE HIM **MANY CHANCES**

PHARAOH'S **EVIL** REACHES A POINT OF **NO RETURN**

GOD **BENDS** PHARAOH'S EVIL TO HIS PURPOSES & LURES HIM INTO HIS OWN **DESTRUCTION**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바벨론에서부터 구해달라고 울부짖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바로왕의 악을 역으로 뒤집어 사용하십니다. 한 이스라엘 산모가 남자 아이를 낳아 강에 던지는데, 대신 갈대상자에 넣습니다. 그 아이는 안전하게 바로왕의 가족의 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이고, 그는 자라서 바로왕의 악함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유명한 이야기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위임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풀어주도록 명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 보내기를 거부할 것을 아시고 여러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할 것이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이제 다음의 주요 사건인 하나님과 바로왕의 대결 장면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이 부분을 그 순서대로 자세히 읽어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와 바로의 첫번째 만남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암시는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첫 세트로 다섯 가지 재앙을 보내십니다. 각 재앙마다 바로와 그의 신들을 하나씩 대적하십니다. 그 때마다 모세는 바로에게 자신을 겸손히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줄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각 재앙이 끝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완강해졌다고 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자기 의지대로 하고 있는데, 마침내 둘째 세트의 다섯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출10:1-2).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옳은 일을 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바로의 악함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신하들조차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악함을 꺾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스스로 파멸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하십니다.

— RBBB 보조자료: The Bible Project 성경 각권 해설 rbbb.wycliffe.ca —



4. 유월절의 구속

마지막 재앙인, 유월절 밤,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어린양의 피로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잠시 중단되고 이스라엘의 연례 절기인 유월절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밤, 흠 없는 어린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그러면 마지막 재앙이 온 이집트를

뒤덮을 때, 어린양의 피로 덮인 집은 지나가고 (유월; pass over) 그 아들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일을 행함으로 이 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기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의 교만함과 반역으로 인해 그의 아들을 잃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나가라고 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노예들은 드디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곧 마음을 바꾸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잡니다. 출애굽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지나 안전하게 건너고 바로는 파멸의 길로 자기 군대를 내뿜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첫번째 찬양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바다의 노래' 라고 하는데 마지막 소절에서 여호와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 선포합니다 (출15:18).

그리고 시의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에 대해 다시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의 악에 맞서서 그 악에 노예된 자들을 구속하시는 지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룩한 임재로 함께 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왕이 되시면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줍니다.



5 광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찬송시를 마치고 스토리는 급격한 전환을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배고프고 목이 마르자 모세와 하나님께 심지어는 그들을 구해낸

것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시절이 좋았다며 그리워하기까지 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그리고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죠. "이스라엘의 마음 역시 바로왕처럼 완악한 것인가? "

앞으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전반부입니다